

보도시점 2023. 11. 5.(일) 11:00
< 11.6.(월) 조간 >

배포 2023. 11. 5.(일)

중국 내수시장 개척으로 수출 플러스 달성을 향해 달린다

- 중국 최대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 212개 한국기업 참가
-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정부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참석
- 양병내 통상차관보, 상무부 부부장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 협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는 11월 5일(일)부터 10일(금)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‘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’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12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.

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하여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*로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. 이 박람회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/민영 기업들이 구매사절단으로 참여해왔으며, 우리 기업들에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왔다.

* 1회(18), 2회(19) : 시진핑 주석 현장 참석, 3회(20)~5회(22) : 시진핑 주석 영상축사

올해 제6회 박람회에는 총 1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,4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,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여하였다. 우리나라(2022년 84개사)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홍콩, 일본, 미국에 이어 4번째이다.

이번 국제수입박람회에는 정부 대표로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프라인으로 4년 만에 참석하였다. 양 차관보는 11. 5.(일) 중국(中) 상무부 부부장(리페이, 李飛)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(12. 1일 시행)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협의하였다.

아울러 양병내 차관보는 우리 진출기업(상하이 E-이노베이션밸리)을 방문하고, 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유익한 기회이면서 어려운 세계적(글로벌) 여건 가운데 수출 플러스 달성의 계기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	책임자	과 장	주원석 (044-203-5690)
	동북아통상과	담당자	사무관	이주영 (044-203-5693)

1. 개요

- 목적 :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및 수입 확대를 글로벌 교역 증진을 위해 '18년부터 상하이에서 국가차원의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
 - 중국 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및 기업들이 바이어·구매사절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中 내수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
- 기간/장소 : 11. 5^(금) ~ 10^(수) /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
- 주최/주관 : 中상무부, 상하이시정부 / 중국수입박람회, 국가전시센터
- 규모 : 33만㎡ (상품무역관 27만㎡, 서비스무역관 3만㎡, 국가관 3만㎡)

2. 참여 규모

- 130여 개국(美·日·獨 등) 국가와 지역에서 3,400여 개 기업이 참가
 - * '23년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주요 참가국별 기업수(개) : 일본 350, 홍콩 339, 미국 249, 한국 212, 독일 159, 프랑스 130 (디렉토리 기준)

3. 한국 참가 업체 현황

- 금번 박람회에는 우리 기업 212개社 참가(4위)
 - * 역대 우리기업 참여 규모: 제1회(186) → 제2회(205) → 제3회(111) → 제4회(111) → 제5회(84)
 - 모집 기업수 : 무역협회 94개 사, aT 32개 사 및 기타 개별 참여
 - 우리 기업은 식품 및 농산품관, 자동차관, 기술장비관, 소비재관, 의료기기 및 보건의약품관 등에 참가